

2026 02
통권 310호

티움

안동교구 사람 사는 이야기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contents

- 01 2026년 교구 실천사항
- 02 2026년 교구 실천사항 -이달의 실천사항 2p
- 03 소공동체 기도 3p
- 04 반모임 길잡이 4p
- 05 복음 말씀(마지막 주일) 5p
- 06 말씀 길잡이 6p
- 07 질문하는 신앙, 성찰하는 삶 8p
- 08 대안적 삶을 찾아서 10p
- 09 가톨릭 농민분회 이야기 12p
- 10 우리 생명 이야기 14p
- 11 주교님과 함께하는 묵상 16p
- 12 건강한, 신앙생활 18p
- 13 교구 신앙의 역사 이야기 20p
- 14 소개합니다 - 교구역사관 22p
- 15 교구 소식 24p
- 부르심
- 17 사제의 단상 26p
- 18 신학교에서 온 편지 28p
- 19 그분과 함께 30p
- 20 알림 32p



'티움'은

개인과 공동체가 신앙과 사랑의 싹을 틔우고
열매 맺도록 도움을 주는 가까운 벗이 되고자 합니다.

퍼낸곳 천주교안동교구사무국
주소 36678 경북 안동시 마지막길 77
전화 054.858.3114
홈페이지 <http://www.acatholic.or.kr>

표지 글·그림: 하삼두 스테파노 작가

2026년 실천사항

다가감
경 청
돌 봄

교 구

모든 이의 어머니가 되기 위하여

- 돌봄가 양성 프로그램 실행
- 위기의 영혼 방문

본 당

하느님의 집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 '성령 안에서 대화' 방식 이용
- 취약 가정을 위한 돌봄 네트워크 구축

사 제

동반자이자 위로자가 되기 위하여

- 찾아가는 사목
- 아픔 경청

평신도

서로의 벗이 되기 위하여

- 먼저 다가감
-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작은 돌봄 실천

• 위 표를 참조하여 본당별로 실천사항을 설정하셔도 좋습니다.



다가감 · 경청 · 돌봄의 실천

☐ 1. 귀 기울여 들어주기(경청) _____

☐ 2. 성찰 일기 써보기(감사한 일, 힘든 일) _____



지구를 살리는 나의 실천

1. 유튜브 시청시간 줄이기 ☐

2. 빨래감 모아서 세탁하기 ☐

■ 다가감, 경청 돌봄의 실천과 지구를 살리는 나의 실천을 실천하신 후 체크하시면됩니다

“함께 걸으며 복음을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하느님,
당신의 자비를 본받아
저희도 서로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소서.
무심함과 거리감을 넘어 마음을 열고
외로운 이들의 삶에 따뜻한 빛이 되게 하소서.

삶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신 예수님,
저희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는
참된 경청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쁨에는 함께 웃고, 슬픔 앞에서는 곁을 지키는
진정한 벗이 되게 하소서.

새 힘을 일으키시는 성령님,
돌봄이 미치지 못해 어려움 속에 머무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어,
그들의 짐을 함께 나누며 공동체의 품으로 이끄는
참된 돌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 모두가 관계의 회심을 살아 복음의 생명력을
새롭게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2025.11.19. 천주교 안동교구장 인준

■ 복음 7단계

1단계 (기도)

“어느 분이 이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해주십시오.”

“관계의 회심을 위한 기도(3쪽)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2단계 (독서)

“어느 분이 복음 말씀(5쪽) 본문을 큰 소리로 읽어 주십시오.” (읽은 후)

“다른 분이 본문을 한 번 더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묵상)

잠시 침묵 중에 들은 말씀을 묵상합니다.

마음에 와 닿은 말씀(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분)

4단계 (선포)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을 한 사람씩 돌아가며 두 번씩 말합니다.

5단계 (나눔)

각자 ‘마음에 와 닿은 말씀’에 대한 생각과 체험을 나눕니다.

6단계 (활동과 실천)

1. 우리가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실천들을 제안합니다.

2. 본당 소식 및 기타사항을 전달합니다.

7단계 (기도)

“각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진행자가 마무리 기도를 한다.)

■ 복음 말씀(사순 제1주일)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4,1-11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사십 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작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 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에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종을 들었다.

복음 말씀에 대한 해석 - 말씀 길잡이(6쪽)

아담과 새 아담

함원식 이사야 신부 / 농은수련원 원장

오늘 1독서인 창세기는 인간의 고통과 죽음이 원죄에서 비롯되었음을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사는 에덴동산에 선악과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말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뱀의 꼬임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렇게 첫 인간은 유혹 앞에 무너져서 원죄를 짓고 맙니다.

오늘 복음은 또 하나의 유혹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첫 번째 유혹은 낙원에서 이루어졌는데, 두 번째 유혹은 광야에서 이루어집니다. 유혹은 어디에나 항상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사탄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을 하고 가장 약해졌을 때 유혹합니다.

사탄은 세 번 유혹하는데, 두 번은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명을 위해서는 신적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앞으로 많은 기적을 행함으로써 신적 능력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철저히 하늘나라의 표징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 신적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고통의 삶을 포기하라는 유혹입니다. 하지만 성부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서 살고 죽는 것입니다. 그 삶과 죽음을 통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는 것이죠. 사탄은 그러한 성부의 의지를 거스르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여기서 유혹에 넘어가 신적 능

력을 사용한다면, 그는 고통을 느끼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인간의 허울만 뒤집어쓴 신으로서 세상을 희롱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유혹은 사탄 자신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앞의 유혹들과 마찬가지로 성부의 의지를 거스르라는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바와 같이 대속적 의미를 지닌 고통과 죽음을 겪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부의 뜻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고난 없는 영광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모두 물리치십니다.

오늘 1독서와 복음이 보여주는 유혹의 본질은 하느님의 의지를 거스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독서인 로마서는 예수님을 새 아담으로 소개함으로써 1독서와 복음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아담을 대비시킴으로써, 하느님께 불순종한 아담의 죄로 이 세상에 고통과 죽음이 들어왔지만,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으로 그것이 물리쳐졌다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많은 의인이 있어 하느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어떤 인간도 인류 전체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순종만이 인류 전체의 불순종 죄를 기워 갚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셔야 했습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닮고 재현하는 일입니다

정희완 사도 요한 신부 / 가톨릭문화와 신학 연구소

사제로 살아온 지 33년째에 접어들습니다. 가끔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 신앙이 사제로 살아온 햇수만큼 깊어졌는지 말입니다. 이치상으로 보면 사제로 살아온 신앙의 햇수만큼 내 신앙이 훨씬 더 깊어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신앙의 현실을 정직하게 살펴보면, 솔직히 말해 자신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 신앙이 더 얕아지고 열어졌다는 느낌입니다. 사제로서 신학적 지식과 교리적 지식은 분명 더 깊어졌습니다. 사제로서 종교적 관습과 사목적 일들에도 분명 더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살아온 시간만큼 사제로서 신앙이 더 깊어지고 영성이 더 충만해졌다고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분명 부끄러운 일입니다.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이 깊어졌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신학적으로 또는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신앙은 “계시에 대한 응답”, “하느님의 초대에 대한 인격적 응답”, “하느님의 진리에 대한 의지적·지성적 동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추상적인 설명이어서 명확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름다운 설명이지만, 이것 역시 누군가와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를 묻는다면 쉽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신앙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라고 지난번

에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서 재현하는 일입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은 그의 ‘말과 표정’, 그의 ‘자세와 태도’,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 예수님을 닮아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행동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이 깊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사 생활을 하고, 교리를 배우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 간다는 뜻입니다. 신앙이 깊은지 얕은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복잡한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양심과 상식의 선에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닮았는지 아닌지를 말입니다. 아무리 교리적 지식이 많고 성당 생활에 자주 참여하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말과 표정, 자세와 태도가, 살아가는 방식이 예수님을 닮아있지 않다면 거짓 신앙일 확률이 높습니다.

신앙이 예수님을 닮고 재현하는 일이라면, 신앙 교육과 양성의 과정이 단순히 교리적 지식을 전하고 종교적 관습에 익숙하게 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신앙 교육과 양성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의 신앙 교육과 신앙 양성 방식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현명한 이기주의자

변태석 요한 보스코 회장 / 가은성당 성유 공소

1박 2일로 수녀원에 힐링캠프를 다녀온 아내가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나에게 말했다.

“여보, 내 눈을 쳐다봐!” 눈이 마주치자 아내가 물었다.

“당신은 언제 가장 행복해?” 아마 수녀님이 ‘눈을 마주 보면 거짓말을 못할 것’ 이라고 말씀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순간적으로 내 머리가 빠르게 회전했다. 나는 언제 가장 행복하다고 느꼈을까?

“음~ 나는 어떤 일을 작당하고 추진했을 때,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 순간 아내의 표정이 미묘했다.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표정이었다. 순간 나는 ‘아차’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가 질문한 의도와 다른 답을 했다는 생각에 짧은 후회가 밀려왔다. ‘나는 당신하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해!’라고 대답하는 것이 정답이었을 것이라는 뒤늦은 후회가 들었지만 이미 쏟아진 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멋진 대답이었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언제나 나의 행위로 인해 누군가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 행복해진다. 과업의 결과로 주어지는 보상보다는 그 일 자체의 성공과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것 자체로 행복하다. 가지면서 얻는 즐거움 보다 나눠 주면서 얻는 행복감이 더 크다는 것을 느낀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남을 해치며 얻는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 타인의 행복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나 자신의 행복을 키운다.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다. 그래서 늘 가지기를 원한다. 아흔아홉 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을 탐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는 늘 배가 고플 뿐이며 진정한 행복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나눠주는 행동은 물질이나 시간을 주는 것이지만 돌아오는 것은 행복한 마음이다. 이것은 보다 고차원적인 이기심이다. 달라이라마는 이것을 ‘행복한 이기심’이라고 했고, 심리학자들은 ‘심리적 이기심’이라 했다.

남을 돕는 행동, 희생과 봉사, 양보와 배려 등의 이타적인 모든 행동은 마음의 평안, 자기 정체성의 유지, 죄책감의 감소, 사회적 유대 강화 등의 내면적 보상으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 보다 차원 높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마태오19:24, 마르코10:25, 루카18:25)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가진 것을 타인과 함께 나누며 공동체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살라는 뜻이다.

현명한 이기주의자는 타인의 행복을 돌본다. 그것이 더 큰 행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안동 가톨릭 농민회의 만형 쌍호 분회

가톨릭 농민회 사무국

쌍호분회는 쌍호공소 신자를 중심으로 결성된 신앙공동체이자 농촌공동체이다. 1979년 창립이후 안동농민회사건(소위 오원춘사건), 수세투쟁, 수입소 피해보상투쟁등 강제농정철폐와 농민생존권투쟁에 앞장섰으며 한편 마을 공동 모내기, 품앗이, 풍물놀이 등 마을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활동도 열심히 해온 모범분회이다.

1991년대 생명운동으로 전환하여 생명농업실천과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도·농교류사업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 기본 현황

구 분	내 용
위치	경북 의성군 쌍호리 일원
창립	1979년 3월 29일 창립
운영체제	매월 5일 월례회
임원 및 회원	분회장 : 진상국, 총무 : 김정상 6기구 최이녀 이네스, 이장숙 베로니카 진상국 시리노 · 반향숙 필릭스, 김정상 미르띠노 · 조옥희 베네딕타 최재호 미르띠노 · 우준보 베로니카 하준혁 프란치스코 · 권옥이 프란치스키
주요품목	주곡, 잡곡, 김치, 양파, 미늘, 고추, 김장채소, 원채소, 기능소 등
수상 내용	2019.10.11. 제14회 가톨릭 환경상 대상
도·농 교류 현황	서울대교구 묵동상당(2001년), 양진상당(2003년), 목3동상당(2008년), 안동교구 길진미타이상당(2025년)

○ 주요활동

1979년 3월 창립이후 매월 5일 월례회를 현재(2025.12 550차)까지 빠짐없이 진행해 왔다. 월례회는 부부동반 참여하여 함께 결정하고, 함께 실천하는 생

500차 월례회



14회가톨릭환경상대상수상(2019년)



할 나눔의 장이다. 특히, 생명농업 원칙, 소농원칙, 공동체 규약(분회회칙)을 지키고자 노력해왔으며 농자재 공동구매, 가농소 사육 환경 유지, 파쇄목을 이용한 자급퇴비 만들기, 1년에 2차례 걸친 농지점검등을 진행하고 있다. 결연을 맺은 서울대교구 목동성당(2001년), 양천성당(2003년), 목3동성당(2008년), 안동교구 갈전마리아성당(2025년)과는 풍년기원미사 및 추수감사미사, 일손돕기 등 교류활동과 생명농산물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농사체계

매년 농사를 마무리하고 겨울철 마을 앞 낙동강변에서 버드나무를 베어 150톤 정도의 파쇄목을 만들어 이를 소똥과 섞어 거름으로 만든다. 마늘과 양파 밭에 이 거름을 사용하여 농사를 짓는 유기순환 농법을 20여 년 동안 실천해오고 있다. 그 결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흙은 검은 빛을 띠는 양질의 토양으로 바뀌어 생산성이 높아졌고 화학 비료를 사용하는 농가에 비하더라도 결코 수확량이 떨어지지 않는다. 파쇄목을 이용하는 거름 생산을 위해 현재 2가구가 가농소를 입식하여 사육하고 있으며 농사와 축산을 병행하는 소규모 복합영농을 실천하고 있다.

- *분회 : 가톨릭농민회를 이루는 가장 작은 조직 단위, 현재 10개의 분회로 구성되어 있다.
- *자급퇴비 : 농민들이 직접 농사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나 농작물 잔여물을 등을 활용하여 만드는 퇴비(거름)을 의미한다.
- *도농교류 :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통해 농업 · 농촌의 가치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지구의 내일이 있게 하기 위한 길 30 - 핵발전소 없는 세상 만들기 5 -

김시영 베드로 신부
함창 본당 주임, 안동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맞고 패망한 일본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또다시 위기에 처한 것은 핵에 대한 안전신화와 거대한 핵발전 이권 네트워크인 ‘핵발전촌’(핵발전마피아)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1978년 방사선 과열이 급격히 방출되는 임계사고가 났지만 은폐했습니다. 남쪽 약 100km 아래 일본 최초의 핵발전소가 건설된 도카이 마을에서 1999년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도 핵발전촌 사람들은 예상 밖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렇게 사고가 날 때마다 핵발전소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고 변명하고 데이터를 숨겨오다가 수습이 불가능한 대형 사고가 난 것이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입니다. 국제 핵발전 사고 4~7등급 중에서 가장 높은 7등급 핵발전소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첫 번째 7등급 사고는 그 악명 높은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 사고지만, 21세기 이후에 일어난 유일한 사고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입니다.

1.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 원인

2011년 3월 11일 진도 9의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20~40m의 쓰나미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앞을 가로막고 있는 5m 높이의 방파제를 넘어 핵발전소를 덮쳤고, 1~4호기 원자로가 지하에 잠겼습니다. 주변 마을 또한 23초 만에 없어졌습니다. 핵발전소 폭발 사고의 첫 번째 원인은 방조제를 낮게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 발전기를 지하에 둔 것입니다. 변전 설비를 건물 지하에 두는 바람에 침수되어 비상 발전기의 전원이 멈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냉각수를 공급하는 순환 펌프에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냉각 장치가 정지되어 연료봉이 달궈지면서 노심 온도가 올라가 폭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료봉을 감싸고 있는 물질인 지르코늄 때

문입니다. 지르코늄으로 연료봉을 감싸는데 그 이유는 연료봉이 극심하게 열을 내지 않도록 보호하고 핵반응을 계속하도록 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연료봉의 온도가 계속 오르면서 지르코늄이 물을 만나 산화되어 점점 심하게 과열되면서 2,800도까지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핵발전 운용의 마지노선은 1,200도). 이 온도는 지르코늄과 수증기가 반응하고도 남은 온도이며, 수증기와 반응해서 수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수소는 가연성 원료로 소량으로도 점화가 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콘크리트 차폐벽으로 수소 가스를 천천히 방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연료봉의 방사성 물질도 외부로 방출하게 되었습니다. 안전밸브를 통해서 천천히 외부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건물에 남아 있던 수소가 있었고 그 수소가 건물 상부에 도착하면서 수소 가스가 폭발해서 1·3호기와 4호기에 불이 붙어 폭발한 것입니다. 다수의 원자로가 동시에 녹아내린 최초의 사고이며, 14년이 지난 현재도 사고 수습은 진행 중입니다.

2.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 피해 규모

핵발전소 폭발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은 도쿄까지 날아갔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주변 20km는 출입제한 구역, 30km는 피난 구역, 50km는 계획적 피난 구역으로 선정되어 15만 명의 시민들이 피난길 올랐습니다. 핵발전소에서 200km 떨어진 가조시의 폐학교는 핵발전 난민촌이 되어 500여명이 도시락으로 세끼를 해결하면서 거주했습니다. 체르노빌에 필적할 방사능 유출 사고 후 1년 동안 피난 과정에서 3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따르면 일본 최남단에 위치한 오키나와현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방사능 오염이 확인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격납용기도 손상되면서 방사성 물질이 우리나라의 서해와 동해뿐만 아니라 전 태평양으로 퍼져 나가 오염시켰습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는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석관을 만들어 원자로를 봉인한 상태지만, 후쿠시마는 아직 원자로의 노심을 완전히 냉각시키지 못했으며, 여기서 지속적으로 방사성 물질과 ‘죽음의 재’라 불리는 낙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핵발전이 정지하는 ‘냉각운전정지’(Cold Shutdown) 상태까지는 아직 20년 정도가 더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주교님과 함께하는 목상



라자로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을 그의 무덤에까지 가게 했다. 라자로에 대한 예수님 사랑의 과정은 죽음을 무릅쓴 십자가의 길이었고, 이 과정이 라자로를 다시 살게 한 것이다. 무덤을 막았던 돌을 치우고, 라자로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워 무덤에서 나오게 하고, 몸을 속박하던 모든 끈을 풀어 주어 해방과 자유를 주신 예수님의 행위는 우리가 일상의 무덤에서 나와 부활의 삶을 살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어진다.

“○○○야, 이리 나와라!”하고 큰 소리로 부르신다.

만남이라는 신비, 권혁주 요한 크리스토토포 주교 지음

올바른 자세와 평형 유지

박인수 베네딕도 한의사 / 용상동 본당

우리는 광활한 우주에서 태양계의 지구에 살고 있으며 작은 별이다. 지구에는 엄청난 힘의 중력이 작용하고 지구에 사는 생명체들은 중력의 영향에서 벗어나 살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중력 방향으로 견디며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걸 잘하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남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그래서 의사들의 역할 중에서 환자가 잘못된 자세로 인해 균형이 무너져 있으면 그것을 고쳐 바로 잡아주어야 하고 환자는 어떻게든 비뚤어진 자세를 고쳐 균형을 잘 유지하며 살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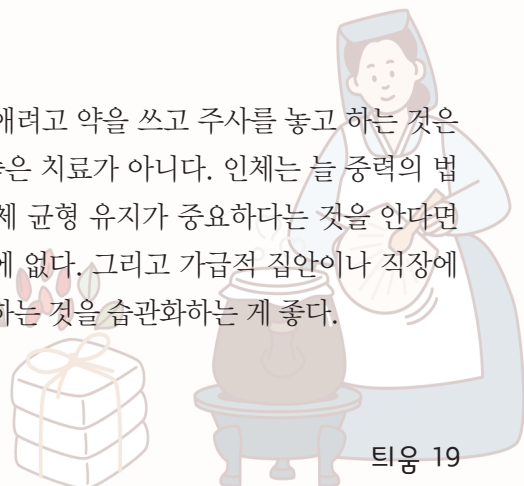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있어 키가 커서 중심이 높아 흔들리는 사람보다는 키가 좀 작고 아래쪽으로 무게 중심이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하다. 자세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삐딱하면 그것을 잡기 위해 용을 써야 하고 움직일 때 흔들림이 심해진다. 자세가 바르면 중심이 잡히고 그런 상태에서는 움직여도 흔들림이 덜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고 수명이 길어진다. ‘치아(齒牙)를 인체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유는 많겠지만 음식을 잘 씹어 먹을 수 있어서 소화가 잘 되게 해서 그런 것이 가장 클 테지만 치아가 건강하여 고르면 턱관절이 좌우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어서 목이 편안하게 머리를 받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람이 직립해 있을 때 가장 위쪽에 위치하고 무거운 것이 머리다. 성인 머리의 무게는 4.5~5.5kg 정도고 체중의 6~8% 정도다. 볼링공에 비유하면

10~12파운드 정도에 해당하는 데 그 정도로 무겁다. 그래서 예로부터 머리를 하늘이라고 했고, 경추(목뼈) 1번의 이름이 천구를 이고 있는 형벌을 받는 티탄족 아틀라스(Atlas)에서 따왔다. 그만큼 머리가 무겁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평소에 머리 무게를 못 느끼며 사는 것은 구조역학적으로 목뼈가 스프링처럼 안정적으로 목을 받치고 있어서다.

그런데 그 머리의 중심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목과 어깨, 허리 무릎이 있는 축도 같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 비딱하게 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목을 숙일 때 15도 정도면 12kg, 30도 정도면 18kg 정도의 무게가 느껴진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목과 어깨 근육의 피로도가 심해지게 되고 디스크가 한쪽으로 밀려 나오거나 척추를 지탱하는 근육과 인대에도 피로가 누적되어 통증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자세가 틀어진 것을 바로 잡아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하지 않고 통증만 없애려고 약을 쓰고 주사를 놓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라 좋은 치료가 아니다. 인체는 늘 중력의 법칙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과 그래서 인체 균형 유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아무리 운동이 싫어도 꾸준히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급적 집안이나 직장에 전신 거울을 두고 늘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게 좋다.



“초대 교구장 두봉 주교의 약력과 희망(포부)”-2

신대원 요셉 신부 (안동교회사연구소장)

1969년 5월 29일 안동 감목대리구는 대구교구에서 분리 독립하여 안동교구로 설정되었고, 7월 25일에는 안동교구 초대 교구장으로 파리 외방전교회 두봉 신부가 임명되어 착좌하였다. 사실 안동교구의 설정과 두봉 신부의 교구장 임명설은 이미 4년 전부터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두봉 주교는 한국교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방인(邦人) 신부가 교구장 주교로 임명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러한 두봉 주교의 주장은 1969년 5월까지도 교황청의 교구장 임명을 일단 거절하였다.

하지만 두봉 주교는 재임명을 받고 계속하여 교황청의 교구장 임명을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어서 교구장직을 수락하였으며, 수락한 이후에도 두봉 주교는 “이번 재임명을 받고 하느님의 뜻을 거절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수락은 하였으나, 앞으로의 일이 걱정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자신의 심경을 솔직하게 피력하기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두봉 주교는 또 피력하기를 “안동교구는 파리 외방전교회에서 맡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파리 외방전교회 회원인 나와 교구민들이 같이 힘을 합쳐 이루어 가는 것이므로 조금도 외부에 대한 도움은 바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교구장으로서의 각오를 의연하게 표현하였다.

특히 두봉 주교는 안동교구의 초대 교구장 주교로서 앞으로 수행해야 할 사목 방침이나 방향에 대해서도 뚜렷한 소신과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다. 두봉 주교는 먼저 사목 방침에 대해 “교구는 신자들이 본당을 이루고, 그 본당들이 모여 이룩되는 것인 만큼, 모든 것은 신자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제는 다

만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신앙을 키워가고, 교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탕과 환경을 주는 데 그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교구 공동체가 갈수록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해 나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이것이 신임 교구장으로서 뚜렷하게 밝힌 그의 소신이였다.

두봉 주교는 그의 사명을 “다만 뒤에서 교회발전에 조그마한 몫을 수행하는 것이며, 장차 한국인 지도자들에 대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후에, 다시 본연의 직분인 선교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임명에 대한 자신의 소감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신임 교구장으로서, 또 외국인 교구장으로서 밝힌 짧은 그의 소감은 곧 그의 재임 기간이었던 1969-1990년까지 자신의 사목적인 포부이자 희망이며 동시에 사목적인 밑바탕이였다. 이러한 기본적인 토대 위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안동교구의 교구장직을 성실히 수행해 나아갔다.

안동교구 첫 교구장으로서 두봉 주교는 부산으로 전출이 예정된 신부를 포함해서 당시 각 본당 주임신부를 모두 그대로 유임해 줄 것을 대구교구와 왜관 베네딕도 수도회에 요청하였다. 특별히 두봉 주교는 각 본당 사제들에게 “어느 회 소속 신부이든, 원한다면 안동교구는 적극적으로 환영할 것”이라며 사제가 부족했던 당시 상황에 대해 신생 교구로서 첫발을 내딛는 것에 과감하게 포용의 자세를 견지하였다. 실제로 당시 대구교구 이길준 바오로 신부(다인), 김용길 바오로 신부(의성), 춘천교구 최동오 아타나시오 신부(울진), 왜관 분도회 왕묵도 레지날도 신부(함창), 송만협 요셉 신부(화령), 신결만 제오르지오 신부(가은) 등이 안동교구에 남아 사목활동을 이어갔다.

다음 호에서는 안동교구의 관할구역과 성직자 및 신자들의 수(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틴쥬성교공과 제1권

(가로 13.3cm*세로 20.8cm 1906년)

1862년 목판본으로 인쇄되어 1972년 가톨릭기도서가 나오기 전까지 사용된 한국천주교회 공식 기도서이다. ‘공과’는 넓은 의미에서 매일 기도를 뜻한다. 제2대 조선 대목구장을 지낸 앵베르 주교(1837년 입국)가 조선에 맞는 기도서의 번역 편찬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1939년 기해 박해로 순교하고 이후 최양업 토마스 신부와 다블뤼 주교와 베르네 주교에 의해 보완되어 1862-64년 사이에 4권 4책의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100년 이상 수없이 중간되어 한국천주교회 신심 생활의 원천이 된 책이다. 안동 명동공소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임순조 루실라(1937년 생)는 점촌 잣골이 고향인 외할머니가 매일 새벽기도(조과)를 외우게 하고 저녁기도(만과)도 철저하게 바치도록 하였다. 아이들이 주모경을 외우다 즐겁게 되면 여지없이 불호령이 떨어졌고 학교숙제를 마치고 나면 묵주기도와 매일기도를 바쳐야하는데 아파서 빠트린 날은 큰 죄를 짓는 것 같이 다음날은 꼭 기도를 바쳤다고 루실라는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조과 만가 등이 수록되어 있다.



교구 소식들

■ 2026년 신년인사회



■ 성체분배권수여교육



■ 부제품 서품식



부르심



복지, 또 다른 선교

손성문 사도 요한 신부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저는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은 90년대 초 전국의 영구임대단지 내에 사회복지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생기면서 94년에 개관하였습니다. 복지관 1층에는 어린이집이 3층에는 지역아동센터와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가 서로 다른 기관이지만 한 건물 안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저소득층이나 위기가정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했다면 지금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의 꿈을 함께 찾아가는 사업,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밀반찬과 무료급식지원, 노인일자리, 이동목욕, 노인대학, 한글교실, 외국어교실, 농촌이동복지관 등 프로그램실이 부족할 정도로 바쁘게 돌아갑니다.

무료급식은 주 3회 제공하는데, 저소득 어르신들에게는 제대로 차려 먹는 한 끼가 되기도 하기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봉사자가 자꾸 줄어드는 데 보니 운영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은 전국에서 거의 처음 실행하였습니다. 시내 지역엔 복지기관들이 많이 몰려있지만, 읍면지역에서는 그런 서비스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0년대 중반부터 농촌이동복지관을 운영해왔습니다. 여러 기관 및

봉사 단체와 연계하여, 한 달에 두 번 시골 마을을 방문해서 침, 쭉뚱, 물리치료, 교통안전교육, 이불 세탁, 영화 관람, 방충망 수리 등 다양한 욕구를 채워드립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간접적인 전교도 하게 됩니다.

작년 봄에는 대형 산불로 지역의 많은 주민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자 전국에서 정말 많은 분이 따뜻한 마음으로 금품을 나누고 봉사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복지나 행정이 한정적인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다 보니 선착순으로 대상을 선정해서 정보를 아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재난상황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서 많은 분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준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중간에서 집행만 하는 처지였지만 많은 민원을 감당해야 했고, 모든 이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자괴감도 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사회복지회에서 소임을 한 지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본당에선 접하기 어려운 지역사회의 모습과 생태계, 다양한 자원을 보고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좁은 곳에 갇히지 않고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주하지 않고 늘 배우려는 마음과 겸손하고 젊은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애쓰겠습니다. 사제들을 위해 기도해주시는 모든 분께 하느님 은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민우 테오�필로 부제
봉화 본당

찬미 예수님.

이번 1월 11일에 부제품을 받은 이민우 테오�필로 부제입니다. 하느님과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이렇게 부제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하느님께서 얼마나 큰 인내로 저를 기다려 주셨고, 또 얼마나 깊이 사랑해 주셨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신 하느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가 품 피정 동안 체험했던 하느님의 사랑과 그 안에서 받은 응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나눔을 통해 하느님께서 제 삶 안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품 피정을 시작하며 저는 걱정과 근심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모든 걱정과 근심을 용기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느님께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자비하심 안에 머물며 저는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주님, 하느님께서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저를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쓰시려고 부르셨습니까?” 저는 침묵 가운데 주님께 머물며, 피정 강의와 성시간을 통해 주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결국 사랑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한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저는 “너는 하느님의 사랑받

는 아들이다”라는 응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안의 부족함을 의식하며, 하느님으로부터 더 채워지고자 애써 왔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느님을 제 삶의 중심에서 놓친 채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안에서 깨닫게 된 것은, 제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계시며, 묵묵히 기다려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번 피정은 하느님께서 이미 주고 계셨던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느님 앞에 합당한 사람일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 두려움은 결국 사랑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잊게 합니다. 사랑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당신께서 주신 사랑을 교회에 봉사하며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부제가 되도록 기도하며 직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위해 기도해주신 분들과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 13.1)



2026년 부제 서품식

1월 11일(주일) 주교좌 목성동 성당에서 부제 서품식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끄심과 은총 안에서 김정수 그레고리오(송현동 본당), 이민우 테오필로(봉화 본당) 신학생이 부제품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사랑과 기도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새 부제들이 직무 안에서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 림

1. 초등부 복사단 연수

일 자 : 1월 31일(토) - 2월 1일(주일)

장 소 : 농은수련원

2. 대신학생 동계연수

일 자 : 2월 8일(주일) - 10일(화)

장 소 : 우곡성지

3. 대신학교 수직식 및 입학식

일 자 : 2월 28일(토) / 3월 1일(주일)

장 소 : 대구 신학교 남산동 대성당

대 상 : 독서직 - 김기섭 요셉(구담 본당)

신입생 - 손동일 T.아퀴나스(점촌동 본당)

김태영 사도 요한(개운동 본당)

4. 2026년 예비신학생 등록 신청

대 상 : 사제 성소를 꿈꾸는 중고등부 남학생(중1~고3), 대학생과 청년

방 법 : 등록 카드 작성 후 부모님 동의와 본당 신부님 추천을 받아
사목국으로 우편 접수. 공문을 통해 안내 확인.

※ 등록카드 다운 방법

안동교구 홈페이지-자료실-서식자료 - 안동교구예비신학생등록카드

5. 성소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안동교구 각 본당 매월 마지막 주일 교중미사

매주 수요일 교구청 미사

성소후원 회비 납부 현황

2025년 12월 1일 ~ 12월 31일까지 납부하신 내용입니다.

정성껏 보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구 내 본당		화 령	6,953,000	배윤근	200,000	홍미정	240,000
가 은	865,000	후 포	221,000	변진의	10,000	이길선편	
가 흥 동	3,711,000	휴 천 동	8,403,000	서효식	30,000		
갈전마티아	5,000,000	교구 내 기타		손계원	50,000	강명희	5,000
강 구	2,770,000	김정현 신부	10,000	송은옥	10,000	권순옥	10,000
개 운 동	6,395,000	백동수 신부	10,000	신옥선	10,000	김중향	5,000
계 립 동	1,773,000	서동호 신부	20,000	신용찬	50,000	김지은	10,000
공 김담	940,000	안영배 신부	10,000	안금혜	50,000	나양수	30,000
구 성 동	2,079,000	윤성규 신부	20,000	안명숙	40,000	박영신	10,000
남 성 동	10,433,000	정양모 신부	100,000	안안택	10,000	백형숙	10,000
다 전 동	279,000	정철환 신부	10,000	위은숙	10,000	변우경	5,000
모 성 동	889,000	박경순	20,000	유영자	20,000	빈재희	500,000
문 성 동	2,464,000	박보라	10,000	이귀호	10,000	송 경	10,000
봉 화	425,000	박정렬	10,000	이명렬	50,000	신미란	10,000
북 면	4,000,000	서영림	10,000	이임영	50,000	양수모	10,000
사별퇴강	945,000	신동섭	20,000	이정숙	20,000	이경열	120,000
서 문 동	4,365,000	이가엘	10,000	이정아	20,000	이길선	1,010,000
송 현 동	13,230,000	타교구 개인		이호숙	10,000	이영섭	20,000
신 기 동	2,788,000	강윤순	5,000	장준영	10,000	전정희	5,000
안 영 계	1,237,000	권양일	10,000	장희익	40,000	정옥남	10,000
영 덕	431,000	김건화	10,000	정경자	40,000	최경수	200,000
영 양	3,836,500	김경란	10,000	정재식	50,000	최은정	10,000
예 해	2,879,000	김경란	10,000	정태진	20,000	최인숙	310,000
옥 천	1,469,000	김경림	10,000	조기섭	20,000	현희성	10,000
와 공 산	7,336,000	김경수	10,000	조원준	10,000	황재해	305,000
용 상 동	779,000	김광진	50,000	최경희	20,000	성 분 도 치 과	
울 동	420,000	김규영	120,000	탁인자	30,000	100,000	
의 성 동	9,000,000	김근희	100,000	황두영	200,000	안 동 신 협	
점 촌 동	1,620,000	김기동	5,000	황상호	30,000		
정 상 동	3,691,000	김순주	100,000	월 모 임 편		100,000	
진 보 동	10,834,000	김영화	100,000	김명숙	120,000	은총의 거울 Pr	
청 송 양	4,592,175	김은경	100,000	박노숙	120,000		
춘 동	485,000	김정은	20,000	설영숙	10,000	25,000	
태 화 동	1,316,000	김현정	20,000	심재임	20,000		
풍 기	6,501,289	김혜경	10,000	이경숙	360,000	정의의 거울 Pr	
하 망 동	6,756,000	박승철	10,000	이순연	20,000	20,000	
합 창	1,650,000	박종대	10,000	임수애	120,000		
	2,068,000	반영순	100,000	최금주	50,000	향 주 삼 덕 회	
	1,942,000			호원순	200,000	20,000	

입금계좌안내 - 예금주 : 천주교안동교구 * 입금자명을 꼭 적어주세요!!

(농협) 733-01-254416 (기업) 160-000175-04-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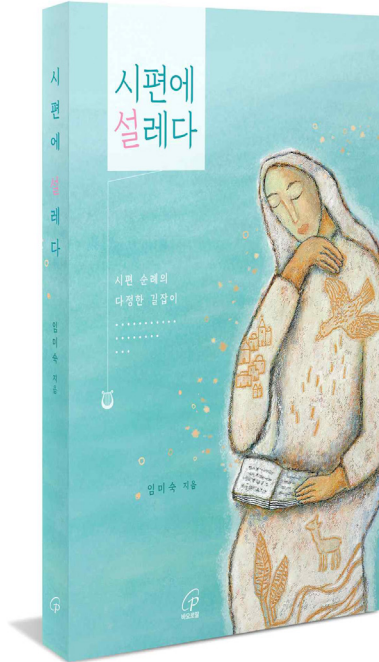
(신협) 09035-12-001948 (신한) 140-005-570052

(우체국) 703439-01-004207 (지로) 7519989

* 기부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054-858-3114-5번으로 연락해주세요.

시편에 설레다

임미숙 지음 | 135 * 205 | 288쪽 | 14,000원



2026년 병오년 새해를 시편 순례의 다정한 길잡이와 함께 시작하면 어떨까요?
찬양의 책인 시편에는 하느님 앞에 선 인간의 진솔한 감정이 담겨있습니다.
구구절절한 시편 말씀으로 하느님과 더욱 가까워지길 축원합니다!



바오로딸은 진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수녀들이 운영하는 서점입니다.
전화 054-859-6040 / 목성동 주교좌 성당 입구